

명승 구성의 방식과 유형화의 길 :

-경포대 소재 시문을 중심으로*

김풍기(강원대)**

〈목 차〉

- | | |
|----------------------------|-------------------------|
| 1. 서론 | 2.3 구체적 풍경에서 보편적 경관의 확장 |
| 2. 경관의 발견과 재구성 | 3. 풍경의 유형화와 관습적 표현의 득실 |
| 2.1 새로운 자연경관의 발견 | 4. 결론 |
| 2.2 구비문학의 전통 수용과 지역 문화의 반영 | |

1. 서론

자연을 인간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것은 인류 문명사의 오랜 전통이다.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을 자연관이라고 명명할 수도 있겠지만, 필자가 조금 더 주목하는 부분은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주체의 시선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의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8057497)

**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자연물을 문화 속의 자연으로 만드느냐 하는 점이다. 또한 인간-주체가 자연-대상을 바라볼 때 하나의 매개물로 여러 소재들을 사용하는데, 그러한 소재들이 해당 경관을 파악하게 만드는 문화원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¹⁾

동아시아의 전통에서 명승²⁾이란 현대인들이 관광을 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멋진 자연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보잘 것 없는 자연이라 해도 그것이 명승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명승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구성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필자는 근래 조선 시대 문인들의 글을 통해서 풍경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유포되는지, 거기에 간여하는 자질들이 무엇인지를 꾸준히 탐구해 왔다.³⁾ 그 자질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자면, 하나는 경물의 아름다움이나 특이함과 관련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문화적 의미의 부여와 관련된 것이었다.

1) 여기서 '문화원형'(cultural archetype)이란 하나의 경관에 상징을 부여함으로써 그것이 문화적 의미를 획득하도록 만들어 주는 문화적 상관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2) 자연의 특별한 한 부분을 지칭하는 단어는 많다. '명승'도 그 중의 하나다. 이와 비슷한 용어로 경관(景觀), 풍경(風景), 경치(景致), 경승(景勝), 승경(勝景), 광경(光景) 등이 있다. 그 단어의 세부적인 차이를 구별해야 할 때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논문에서는 인간의 눈에 들어오는 자연의 부분으로서의 모습을 지칭하는 범박한 뜻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어떤 단어를 사용해도 이 점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명승(名勝)과 풍경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두 단어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굳이 구분한다면 관찰되는 자연의 모습이 풍경이라면 그것이 문화적 의미를 획득하여 지식인들을 비롯한 여러 구성원들에게 의미 있는 풍경으로 인식될 때 명승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슷한 용어들의 함의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할 것: 황기원, 『경관의 해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30~39면.

3) 필자의 다음 글을 참조할 것: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의 명승(名勝)의 구성과 탄생: 설악산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제33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4년 3월, 333~363면; 「고산구곡가에 나타난 이상향의 의미」, 『울곡학연구』 제29집, 울곡연구원, 2014, 225~252면; 「안평대군 그룹의 문화적 토대와 창작 경향 - 조선 초기 관인문학의 이상향 찾기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제36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4년 12월, 77~101면; 「서거정의 시에 나타난 풍경 구성 방식과 원림 문화」, 『고전과 해석』 제18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15년 4월, 193~218면.

경치가 아름다워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적 의미를 획득하는 경우도 있고, 이와 반대의 수순을 밟는 경우도 있다. 혹은 두 부류 중의 하나만 가지고도 명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이 글에서는 하나의 명승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질을 통해서 '명승'으로 자리를 잡아 가는지에 대한 탐구를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명승이 구성되는 맥락과 그 역사적 변천 및 사회적 관심사의 반영 등 문화적 맥락의 역사적 탐구를 진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다만 명승에 대한 범위가 지나치게 넓기 때문에, 논의의 편의를 위해 강릉 경포대 및 주변 경관(혹은 경물)으로 범위를 좁혔다.

경포대는 관련 기록이 고려 후기 안축(安軸, 1282~1348)으로까지 소급된다. 앞으로 논의를 하겠지만, 안축의 글에서도 경포대는 그의 시대 이전부터 존재했었지만 한동안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누정이었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다. 안축에 의해 다시 기록의 전면에 등장한 경포대는 이후 수많은 문인학사들에 의해 시문 창작의 소재로 사용되었고, 창작의 현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그렇지만 그들이 경포대에서 바라보는 주변의 경물이나 거기서 포착하는 문화적 의미에는 시대마다 혹은 개인별로 일정한 차이를 보였다. 물론 거기에는 과거의 기억이나 시문을 통해 관습적으로 학습된 부분이 들어가기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경포대는 어떻게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명승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식되는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2. 경관의 발견과 재구성 : 경포대 및 주변 경관의 경우

2.1 새로운 자연 경관의 발견

한 구역이 지역에서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해야 가능하다는 것은 일견 당연한 진술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요인들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명승으로서의 명성을 얻기 시작하는 시점을 확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어떤 수준을 ‘얻었다고 할지에 대해서도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문헌 기록에 남아서 자신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기준으로 경포대를 살핀다면, 가장 먼저 기록으로 남은 안축의 시문에서 시작해야 한다. 1330년(충혜1) 5월 강릉도존무사(江陵道存撫使)에 제수되어 이듬해 9월에 개경으로 돌아가기까지 1년 5개월여 동안 이 지역에서 지은 시문을 모아 엮은 것이 『관동와주(關東瓦注)』이다. 이 책에는 관동지역, 지금의 강원도 영동 지역의 명승을 돌아보면서 지은 시문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는데, 경포대에 관한 기록 역시 함께 들어있다. 이들 시문을 통해서 안축이 유학을 기반으로 하는 관료의식을 지녔다는 점, 명승의 이면에 침윤되어 있는 백성들의 고난을 작품에 반영하였다는 점, 이를 통해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을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다.⁴⁾ 현재 전하는 기록 중에서 정자로서의 경포대를 언급하고 있는 첫 번째 경우가 바로 안축의 시문이라 할 수 있는데, 그의 시문을 통해서 우리는 경포대가 가지는 문화적 위상을 논의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된다.

안축은 『경포신정기(鏡浦新亭記)』에서 경포대라는 정자의 유래를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 글에서 그는 경포대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지점을 여러 가지 지적한다. 우선 경포대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얻은 것은 안축 자신보다 앞서서 강릉도존무사를 지낸 박숙정(朴淑貞)⁵⁾으로부터다. 안축은

4) 이 점에 대해서는 필자의 논문에서 다룬 바 있다 : 「근세 안축의 시문에 나타난 강원도론」, 『강원문화연구』 제17집,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1998년 9월, 133~155면.

5) 현재 전하는 『관동와주』 해당 기문에서는 ‘朴公淑’으로 되어 있어서 ‘박숙 공(公)’으로 번역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 인물은 안축에 앞서 강릉도존무사를 지낸 박숙정으로 추정된다. 『국역 동문선』, 『국역 근재집』(이상 한국고전번역원)의 주석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도 박숙정으로 표기했다. 이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이 주장하고자 하는 논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박숙정이

자신이 관동에 벼슬을 하러 가기 전에 관동 지역의 형승(形勝)을 말하는 사람들이 모두 국도(國島)와 총석정을 거론할 뿐 경포대는 탄미의 대상이 아니었다⁶⁾고 증언한다. 그 말은 동해안을 따라 형성된 강원도 영동 지역의 탐방로에서 훗날 관동팔경으로 일컬어지는 명승 집단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증언이기도 하다. 이 기록에 의하면 14세기 전반만 하더라도 이 지역의 명승으로는 국도나 총석정과 같은 곳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름이 났을 뿐 경포대는 대단한 명승으로 명성을 얻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곳의 승경에 주목하고 심지어 중요한 포인트에 정자를 세움으로써 경포대의 위상을 정비한 것이 박숙정이라는 점도 읽어낼 수 있다. 안축은 박숙정의 전언을 듣고 처음에는 의아해 하다가 유람을 한 뒤에 판단을 해보겠노라며 경포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그리고 몇 년 뒤 강릉도준무사로 부임하자 경포대의 승경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결국 박숙정이 새로 지은 경포대에 기문을 짓게 된다.

그 이전에도 경포대의 존재가 언급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안축보다 앞선 시기에 활동하던 김극기(金克己)는 ‘강릉팔경(江陵八景)’ 연작시에 「경포대(鏡浦臺)」를 남긴 바 있기 때문에⁷⁾, 지식인들이 경포대의 존재를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팔경’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경치를 범주화하는 초기 작품⁸⁾에서 경포대가 등장했다는 것은 강원도 영동 지역의 명승이 일찍부터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경포대가 탐승의

맞는지의 여부는 논외로 하였다.

- 6) 余未遊關東時，論關東形勝者，皆曰國島叢石，而鏡浦臺則不甚稱美。(安軸，『鏡浦新亭記』，『謹齋集』卷1；『한국문집총간』2권，한국고전번역원，467면) 이 논문에서 원문의 출처를 표기할 때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문집총간』 영인본을 이용할 것이며，2권 467쪽을 표기하기 위해 앞으로 ‘2-467’의 방식을 사용하기로 한다.
- 7) 김극기의 경포대 관련 한시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것: 이한길, 「김극기의 〈경포대〉 한시 연구」, 『동방학』 제14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8년 4월, 61~95면.
- 8) 현재 전하는 기록 중에서 최초의 팔경문학 작품은 바로 김극기의 「강릉팔경(江陵八景)」 연작이다. 이에 대해서는 안장리, 『한국의 팔경문학』, 집문당, 2002을 참조할 것.

대상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는 그 이후이며, 안축의 기문(記文)이 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비록 박숙정의 발언으로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경포신정기」는 안축이 생각하는 경포대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글이다. 다음 부분을 주목해서 읽어보면 안축이 어떤 요소 때문에 경포대를 주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대(臺)에 올라 보니 담담하게 한가롭고 넓어서 사람의 눈을 놀라게 하는 기괴한 사물은 없고 다만 멀고 가까운 곳의 산과 물뿐이었다. 앉아서 사방을 돌아보니 멀리 있는 물은 큰 바다가 드넓게 펼쳐져있고 안개 낀 듯한 물결이 산더미처럼 일렁이고 있었으며, 가까이는 경포호가 맑디맑게 펼쳐져 바람에 일렁이고 있었다. 멀리 있는 산은 골짜기가 천 겹이나 이어져 구름과 안개가 아스라이 감싸고 있었으며 가까이는 봉우리들이 십 리에 펼쳐져 풀과 나무가 푸르게 있었다. 언제나 갈매기와 물새가 나타났다가 잠겼다 오가면서 경포대 앞에서 마음대로 놀고 있었다. 봄과 가을의 안개와 달, 아침과 저녁의 흐리고 갠이 때에 따른 기상이 변화무쌍했다. 이것이 이 경포대의 개략이다.⁹⁾

위의 글에서는 경포대에서 바라보는 경치를 묘사한 부분이다. 뛰어난 자연 경관이 명승을 구성하는 일차적 조건이라면 위의 묘사는 경포대를 바라보는 안축의 시각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이나 자연 경관을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는가 하는 점에서 살펴보면, 안축의 시선은 경포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을 분할해서 바라보기보다는 총괄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는 서양이 가지는 분할적 풍경 인식과 일정한 차이를 가진다. 이는 ‘~의 앞에’ 위치하는 풍경이 아니라 ‘~의 사이에’ 위치하는 풍경이라는 점에서 동아시아

9) 及登是臺，淡然閒曠，無奇怪異物驚駭人目者，但遠近山水而已。坐而四顧，水之遠者，滄溟浩瀚而煙浪崢嶸，近則鏡浦澄清而風漪溶漾。山之遠者，洞壑千重而雲霞縹緲，近則峯巒十里而草樹青蔥。常有沙鷗水鳥，浮沈來往，容與乎臺前。其春秋煙月，朝暮陰晴，隨時氣像變化不常。此臺之大率也。(安軸, 「鏡浦新亭記」, 위와 같음) 이 글에서의 번역은 특별한 표기가 없는 한 한국번역원의 국역을 필자가 수정한 것이다.

문화의 전통에 뿌리를 박고 있는 것이다.¹⁰⁾ 즉 눈에 보이는 자연의 모습을 분할하여 하나의 풍경으로 인식하는 서양의 방식과는 달리 안축의 묘사에서는 하늘과 땅이라는 거대한 우주적 공간과 함께 아침 저녁의 변화를 포함하는 시간적 차원이 동시에 표현되고 있다.

드넓은 바다와 산더미 같이 밀려오는 파도를 원경으로 배치하고 맑게 펼쳐져서 바람에 일렁이는 경포호를 근경으로 배치하여, 대(大)와 소(小), 해(海)와 호(湖)를 대비시키는 것은 물론 동적 이미지와 정적 이미지를 담아낸다. 묘사하고 있는 산의 경우에도 원경과 근경을 대비시키고 있다. 원경은 구름과 안개로 감싸여서 신비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산을 묘사하는데 비해 근경에서는 풀과 나무가 푸르게 자라고 있는 모습으로 그 구체성을 확보하면서 묘사를 하고 있다. 갈매기와 물새의 움직임으로 호수와 주변 산이 가지는 정적 이미지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계절의 변화에 따른 천태만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표현은 실제 안축이 경험한 경치도 있겠지만 상상 속의 모습도 일정 부분 반영되면서 가장 이상적인 경치를 구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예컨대 ‘봄과 가을의 안개와 달[春秋煙月]’은 안축의 경험이라기보다는 이상적 모습을 묘사하기 위한 일종의 관습적 표현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경포대에서 바라보는 주변 경치는 안축의 경험을 충실하게 반영한다. 그의 눈에 보이는 바다와 호수, 산, 날씨 등은 하나의 절대적 풍경으로 고착된 것이 아니라 ‘변화가 무쌍하여[變化無常]’ 일정한 모습으로는 묘사할 수 없다. 살아 움직이는 풍경을 포착하여 그 변화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경포대를 제시하는 안축의 글에서 독자들은 이 장소가 제공하는 발견의 놀라움과 즐거움을 경험하리라는 기대를 품게 된다.

또 하나, 명승을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과 다른 안축의 관점을 여기서 발견한다. 그는 글에서 경포대에 올라보니 ‘사람을 놀라게 하는 기괴한 사물[奇怪異物 驚駭人目]’은 없다고 썼다. 그저 담담하게 산과 물이 있을 뿐이었다. 위의 인용문

10) 프랑수아 줄리앙, 김설아 옮김, 『풍경에 대하여』, 아모르문디, 2016, 42~45면 참조.

에 앞서 안축은 자신이 경포대를 방문하기 전에 강원도 동해안 지역을 여행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모두 국도(國島)와 총석(叢石)을 말했지 경포대(鏡浦臺)는 그다지 칭송하지 않았다’¹¹⁾고 했다. 국도와 총석 모두 주상절리 지대로, 마치 도끼로 쪼개놓은 듯한 바위 절벽이 기괴하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는 곳이다.¹²⁾ 유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상에서 만나기 어려운 경치를 보면서 놀라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을 것이며, 이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대표 명승지로 각광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렇지만 안축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기괴하여 사람을 놀라게 하는 특별한 경관은 없지만 경포대의 담박하고 툭 트인 듯한 경치에서 새로운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발견한다. 그 경치 안에는 주목할 만한 특이점도 없고 사람의 눈길을 끌 만한 사물이나 지형도 없다. 그저 산과 물이 펼쳐진 사이에서 천지의 드넓음을 느낄 뿐이다. 이는 안축이 이 글의 첫머리에서 누대와 정자를 만드는 이유로 언급한 바 ‘유람하는 사람들이 이 사물을 둘러보고 흥취를 붙이고 이를 통해 즐거움으로 삼’는 태도¹³⁾를 그대로 보여준다. 기존의 유람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치를 안축이 발견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기이한 모양을 갖춘 사물이 없더라도, 자신이 거기에 흥취를 붙이고 즐거움을 느끼기만 한다면 당연히 큰 의미를 지닌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아무 것도 아닐지라도 자신에게는 커다란 즐거움이다. 풍경은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롭게 재구성되어 발견되는 것이다.

11) 余未遊關東時，論關東形勝者，皆曰國島叢石，而鏡浦臺則不甚稱美。(안축, 위의 글)

12) 안축과 같은 시기의 인물인 이곡(李穀, 1298~1351) 역시 강원도 동해안을 여행한 후 『동유기(東遊記)』를 남겼다. 여기서도 국도의 경관을 자세하게 묘사한 뒤 ‘기절하고 괴이한 모양은 필설로 묘사할 수 없었다’(若夫奇絕怪異之狀，非筆舌所可髣髴也：『稼亭集』卷5)고 한 바 있다.

13) 人之遊者，覽是物而寓興，因以爲樂焉。此樓臺亭榭所由作也。(안축, 위의 글)

2.2 구비문학의 전통 수용과 지역 문화의 반영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안축이 관심을 가진 것은 지역에서 전해오는 설화였다. 모든 설화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부터 지식인들 사이에서 구전되거나 기록으로 전승되는 설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다. 더욱이 안축의 관동행은 강릉도존무사로서 이 지역을 다스리기 위한 발걸음이었다. 이곳에 부임하면서 안축은 관련 기록을 살펴거나 이미 다녀간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 박숙정의 진술 역시 그런 점에서 안축의 글 속에 수습되었다.

동해안을 유람한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구비전승은 사선(四仙)에 관한 것이었다. 이들의 행적은 금강산 삼일포(三日浦)의 전설 속에 잘 들어있다. 사선의 유래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이들이 신라 화랑의 전통과 관련이 있으리라는 추정은 이미 고려 시대부터 있었다. 이인로(李仁老, 1152~1220)가 『파환집(破閑集)』(卷下)에서 신라의 옛 풍습으로 화랑을 기록하였다. 3천여 명의 낭도가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사선문(四仙門)이 가장 번성해서 비석을 세우기도 했다든지, 고려 태조 때부터 양가의 자제 4명을 선발하여 무지개옷을 입히고 궁중에서 춤을 추게 했다고 한다. 또한 안축과 같은 시대의 인물인 최해(崔灑, 1287~1340)의 글에서도 우리나라의 옛 풍습 중에 얼굴이 예쁜 아이를 선랑(仙郎)으로 부르면서 받들었으며 충렬왕 때에는 이런 아이를 국선(國仙)으로 삼아 궁중으로 불러 들였다고 하였다.¹⁴⁾ 신라의 전통 때문에 고려에도 전해지는 화랑의 풍습을 언급한 기록에서는 이들을 대부분 선랑, 국선 등으로 부르면서 받들었다고 하는데, 사선(四仙)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되는 전통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사선'에 대한 기록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도 바로 이들 기록과 비슷한 시기이다. 이인로와 김극기는 한송정을 신선들이 노닐던 곳으로 표현하였으며¹⁵⁾, 이러한 인식이 고려 중기에 본격적으로 기록화되고 있음을

14) 崔灑, 『故密直宰相閔公行狀』, 『拙藁千百』 卷2.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은 이전부터 내려오던 사선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으리라 추정되지만, 유람객들이 이 지역을 여행하면서 지역 부로(父老)들의 구비전승을 듣고 문학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게 되면서 고착되었을 것이다.

박공이 고을 사람들에게 이 정자를 지으라고 하니, 고을 사람들이 모두 말했다. “영랑이 이 대(臺)에서 노닐었지만 정자가 있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천년이 지난 뒤에 어찌서 정자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음양가들이 꺼리는 말로써 아뢰는 것이었다. 박공이 듣지 않고 재촉하여 명하였다. 일꾼들이 흙을 파다가 옛 정자 터를 발견하였는데 주춧돌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고을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고는 감히 말을 하지 못했다. 정자 터의 흔적은 이미 옛날과의 거리가 멀어서 거의 매몰되었는데도 고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다가 이제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영랑이 지금 세상에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겠는가.¹⁶⁾

안축 역시 지역의 구비전승을 활용하여 자신의 글이 신빙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배치한다. 이 부분은 두 개의 담론 층위를 가진다. 하나는 강릉 지역 사람들의 구비전승이고 또 하나는 박숙정의 전언이다. 지역 사람들은 이곳이 영랑의 유람처이기는 하지만 정자는 없었다고 말을 했고, 박숙정은 정자를 지으려고 공사를 하다가 발견한 주춧돌이 과거 정자가 있던 증거이며 나아가 영랑이 다시 살아온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을 했다. 두 담론의 층위 사이에는 논리적으로 어떤 연결고리도 찾기 어렵다. 그러나 안축은 두 발언을 뒤섞어서 마치 경포대가 영랑이 노닐던 정자라는 느낌을 독자에게 던져주고 있다.

15) 千古仙遊處, 蒼蒼獨有松。(李仁老, 『破閑集』); 云是四仙縱賞地, 至今遺迹真奇哉。(金克己, 『寒松亭』)

16) 朴公命邑人, 構是亭, 邑人咸曰: “永郎遊是臺而未聞有亭宇, 今千載之下, 安用亭爲?” 遂以陰陽忌語告之. 朴公不聽, 督命之. 役者除土而得亭舊基, 礎砌猶存. 邑人異之, 不敢有言. 亭之基迹, 既去古綿遠, 至於堙沒, 而邑人不知, 今而偶見, 此安知非永郎復生于今耶? (같은 곳)

이는 사선이 노닐던 유적이 남아있는 한송정이 경포대와 강릉이라는 지역을 함께 하고 있다는 점, 경포대도 사선 중의 한 사람인 영랑이 노닐던 곳이라는 박숙정의 발언 등을 연결시켜서 경포대의 위상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시기 문인들의 시문에서는 강릉을 비롯한 강원도 해안 지역의 여러 유적지를 네 신선의 유람과 관련하여 묘사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한송정에 대한 시문에서 주로 등장하는 것은 사선들이 노닐던 곳이라는 점과 차를 달이기 위해 사용하던 다조(茶籠) 혹은 다구(茶臼)였다. 자연을 즐기고 시와 음악을 즐기며 차를 마시던 삶이야말로 신선들의 생활을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한송정 주변에 있다고 전하는 다조는 경포대에도 있었다고 한다. 이곡이 『동유기』에서 기록한 글에서 주변 유물들이 가장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그는 1349년 고향으로 가기 위해 강원도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바로 『동유기』이다. 이 해 9월 12일, 이곡은 강릉 경포호에서 강릉준무사와 함께 배를 타고 풍류를 즐기다가 오후 늦게 경포대에 오른다. 거기서 이곡은 경포대 앞에 집이 없었는데 최근 정자를 지었으며, 그 위에는 옛날 신선의 돌풍로가 있었으니 차를 달이는 도구라고 기록하였다. 또한 다음 날에는 문수당에 들렀는데 그 동쪽에 사선비(四仙碑)가 있으며, 한송정 역시 네 명의 신선이 노닐던 곳인데 돌풍로와 석지(石池), 두 개의 돌우물이 그 곁에 있으니 이 역시 신선들이 사용했던 다구라고 하였다.¹⁷⁾

안축의 『경포신정기』를 비롯한 『관동와주』의 시문들과 이곡의 『동유기』를 바탕으로 강릉 경포대와 한송정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네 신선이 유람하며 차를 마시던 곳으로 널리 인식되었다.¹⁸⁾ 더욱이 사선의 유람을 기념하여 세운 사선비는 호종단(胡宗旦, 고려 중기에 고려인으로 귀화를 했던 송나라 사람)이 깨뜨려서 물에 던지는 바람에 귀부(龜趺)만 남았다는 기록이 『동유기』에 처음

17) 이곡, 『동유기』, 위와 같음.

18) 『동국여지승람』 강릉대도호부 조항(卷44)이나 성현(成俔)의 『記江陵原州風俗』(『虛白堂文集』卷3) 등 고려말 이후 문집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들이다.

보이는데, 내용을 보면 이곡이 지역 사람의 말을 전해 듣고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말하자면 당시 이 지역에 전승되고 있던 설화로 보인다. 이 설화 역시 고려 후기 이후 지식인들의 시문에 소재로 자주 등장하게 된다. 이로 보건대 안축의 시대에 와서 경포대와 한송정의 이미지가 사선을 매개로 형성하기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구비전승이 경포호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바로 홍장(紅粧) 설화이다. 이 설화를 전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서거정의 『동인시화(東人詩話)』이다.¹⁹⁾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활동했던 조운홀(趙云弘)이 홍장과 밀약을 맺고 박신(朴信)을 속이는 내용의 일화가 비교적 자세하게 당시 지어졌던 시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작품에는 ‘신라의 태평성대 늙은 안상(安詳)’이 첫 구에 언급됨으로써 경포대와 호수 인근에 사선의 족적이 스며있음을 명확하게 드러낸다.²⁰⁾ 게다가 조운홀이 박신을 속이려고 하는 말에는 이곡이 언급하고 있는 사선비와 경포 및 한송정의 다구들이 등장하고 있다.²¹⁾ 이는 강릉 지역에 네 신선들이 유람했다는 구비전승이 구체적인 지역 및 관련 유물과 함께 널리 유포되었음을 보여준다.

안축의 「경포신정기」는 단순히 경포대의 정자를 신축하면서 쓴 기록으로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후대 지식인들에게 경포 주변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지역에 전승되는 신선 이야기를 통해서 경포대 주변을 신성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기록에 홍장의 이야기가 덧붙여짐으로써 경포대와 그 주변은 신선들의 풍류를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획득하는 것이다. 훗날 경포대의 풍류로움이 방탕함으로 흐르지 않고 신선들의 탈속적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것은 이러한 기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 徐居正, 『東人詩話(下)』 第67則, 이우출판사 영인본, 1980, 96~97면.

20) 新羅聖代老安詳, 千載風流尙未忘, 聞說使華遊鏡浦, 蘭舟不忍載紅粧. (위의 책, 96면)

21) 此地有古仙遺跡, 山頂有茶竈, 距此數十里有寒松亭, 亭亦有四仙碑. (위의 책, 97면)

2.3 구체적 풍경에서 보편적 경관으로의 확장

언어를 통해 감각을 전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내가 본 것을 정확하게 언어로 변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말로 전하는 것도 어려운데, 문자를 통해서 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것도 모국의 문자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자를 배워서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중세 공통문어로서의 한문은 한반도 지역의 문화를 한층 성숙시키는 것에 큰 기여를 했지만, 오랫동안 지배언어로서의 위세를 떨치면서 권력의 중심을 구성하는 힘을 제공했다. 근대 이전의 지식인들에게 한문이란 자기 사유의 구체성을 일반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었다. 중세 문화의 지형도 속에서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사상 감정은 내용 중심의 전달 이상을 넘어서기가 어려웠다.

이 문제는 표음문자가 아닌 모든 문자의 속명으로 보이기도 한다. 특히 표의문자로서의 한자는 표음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상 감정의 구체성을 표현하는 데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한문을 통해서 표현했던 근대 이전 한반도의 지식인들에게 모국어의 구체성을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 하기란 지난한 일이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거나 특이점을 전달하려 할 때 거기에 걸맞은 언어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것을 문자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이르면 고민은 깊어졌다. 철학사에서 중시되는 일종의 '격의(格義)'와 같은 문제가 한문 사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되었다. 물론 그 문제에 대해 역사적으로 깊은 고민을 보여준 예가 흔치 않았던 것은 아쉬운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 사상 감정과 한문 표현 사이에 개재하는 복잡한 문제가 사상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안축이 새롭게 발견한 경포대의 경치를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포대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안축에 의해 재발견된다. 기괴한 모양의 특이점은 없지만 바다와 호수가 주는 넓고 평온함이 아름답다는 인식을 하는 것은 안축이 기존의 미적 시선과는 다른 지점을 확보하는 순간이다. 문제는 이러한 경관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독자들의 미적

시선은 이전의 기준에 맞추어져 있어서, 안축이 드러내고자 하는 경관의 아름다움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안축 자신이 경험하고 느꼈던 경포 주변의 미적 경관과 거기에서 경험하는 구체성을 독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문장으로 잘 표현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

안축의 『경포신정기』에서는 사선(四仙)의 전승을 활용하여 경포대와 주변 경관의 신비스러움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표면적인 경관 이면에 깃들어있는 ‘오묘한 이치’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다. 안축이 이 글 첫머리에서 정자에서 즐길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 바 표면으로 드러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은미하게 숨어있는 것 두 가지를 말한다. 기이한 형상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보고 즐거워하지만 마음 속에 깃들어있는 오묘한 이치는 군자라야 온전히 즐길 수 있다고 하면서²²⁾, 경포대에서는 이 이치를 온전히 즐길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을 『논어』에 나오는 ‘요산요수(樂山樂水)’의 언술로 정리를 한다.

경포 주변의 구체적 경관이 요산요수라는 일반적 이치로 수렴되면서 우리는 기괴한 겉모양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게 된다. 현상 저편에 은미하게 감추어져 있는 오묘한 이치를 발견하는 기쁨이야말로 누정을 찾아 유람을 하는 중요한 목표가 된 것이다. 그것은 네 명의 신선이 우리 산허를 누비면서 자연 속을 노닐었던 이유가 되고, 차를 마시면서 나누던 이야기의 내용이 되며, 훗날 네 신선의 발자취를 좇아 이곳을 탐승하는 유람객들의 기쁨이 된다.

안축의 시대 이후 경포를 다루는 지식인들은 구체적 경관이 전해주는 미적 차원과 함께 작자 자신의 생각을 담은 시문을 다수 창작했다. 후대에 창작된 작품일수록 중국의 다양한 지명과 누정의 이름, 고사(故事)가 활용되어 경포를 묘사하고 있다.

22) 夫形之奇者，在乎顯而目所翫，理之妙者，隱乎微而心所得。目翫奇形者，愚智皆同而見其偏，心得妙理者，君子爲然而樂其全。孔子曰：“仁者樂山，智者樂水。”此非謂翫其奇而見其偏，蓋得其妙而樂其全也？(안축, 앞의 글)

그옥이 생각해보면 경포가 임영(臨瀛)에 있는 것은 전당(錢塘)에 서호(西湖)가 있고 회계(會稽)에 감수(鑑水)가 있는 것과 같으며, 경포에 누대가 있는 것은 동정(洞庭)에 악양루(岳陽樓)가 있고 예장(豫章)에 등왕각(滕王閣)이 있는 것과 같다고 여겨진다. 이런 승경(勝景)에 이런 누각이 없는 것은, 비유컨대 사람의 얼굴에서 미목(眉目)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니, 그럴 경우 서자(西子)와 같은 절세미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사람 모습일 수가 있겠는가.²³⁾

이것은 경포와 경포대의 문화적 위상을 증언하기 위한 서술이다. 위상을 확정하는 일은 다른 것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장유는 중국의 여러 지명과 누정을 거론하여 비교를 감행한다. 장유 자신이 중국의 여러 곳을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자신이 읽어왔던 중국 문장가들의 명문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지역과 누정을 통해서 경포 및 경포대가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지는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직접 경험한 적이 없는 중국의 지명이 강릉의 한 지역에 덧씌워지는 순간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경포를 개념적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된다. 물론 장유(張維, 1587~1638)는 이 글에서 경포 주변의 경관을 자세하게 묘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경치를 묘사하는 글쓰기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경포대기」에서 영랑을 비롯한 신선들, 안축과 박숙정의 사적, 홍장 고사, 세조의 순행(巡幸) 등 경포대의 역사를 나열하였다. 자신도 아직 구경하지 못한 경포의 경관을 묘사하기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는 기존에 전해오는 경포의 사적에 세조의 순행을 덧붙인 뒤, 이곳이 명승으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임금이 직접 임어(臨御)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세조는 무엇 때문에 이곳을 찾아온 것일까? 장유는 그것이 경포대가 가지는 문화적 위상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 위상은 바로 위의 글에서

23) 維竊念鏡浦之在臨瀛，猶錢塘之有西湖，會稽之有鑑水，而浦之有臺，亦猶岳陽之於洞庭，滕閣之於豫章。有是境而無是構，譬如人而去眉目，卽姣麗如西子，尙得爲人乎哉？(張維, 「鏡浦臺記」, 『谿谷集』卷8)

언급한 것처럼, 중국의 명소가 가지는 문화적 의미와 같은 층위의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순간 이곳을 직접 유람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경포호는 서호(西湖)나 감호(鑑湖)가 되고 경포대는 악양루(岳陽樓)나 등왕각(滕王閣)이 된다. 중국 역대 문인들이 사랑했던 아름다운 호수와 누정이 경포호 및 경포대와 비견되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 역시 역대 문인들이 만들어냈던 상상의 창작 공간에서 자신만의 글을 짓거나 문화적 흥취를 향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중국 명문에 등장하는 지명과 누정이 등장하면서 경포는 근대 이전 동아시아가 구성했던 문화적 지형도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위상을 만든다. 서호, 감호, 악양루, 등왕각 등의 용어가 사용되는 순간 경포 주변의 경관은 중세가 구성하는 문화적 의미를 획득한다. 이러한 이미지를 토대로 관련 고사가 연결되고, 이는 다시 경포 주변의 경관이 중세적 문화로 강화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문화적 층위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장유의 기록에서 보이는 경포와 중국 명승의 비교는 장유 자신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이전부터 내려오던 다양한 기록과 전언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부터 신선과 홍장 등의 고사가 중국의 문화적 층위와 만나면서 다양한 형태로 파생되어 나타났다.

夾擁紅旗返火城
使華遊賞稱人情
自甘野服偏蕭散
猶喜詩編及老成
夏永倚風攀檻立
夜深乘月信舟行
① 安能擅此湖中景
狂客狂名繼四明

붉은 깃발 옆에 끼고 화성으로 돌아오니
사신의 유람이 인정에 걸맞구려.
야인의 옷 쓸쓸한 것은 스스로 달게 여기나니
시 작품 노성한 것 오히려 기뻐라.
긴 여름 바람 맞으며 난간에 기대 서고
깊은 밤 달빛 타고 배 가는대로 말긴다.
어찌하면 이 호수의 경치를 독점하며
사명광객의 미친 이름 이룰 수 있을까?①)

24) 이극, 『경포대에서 안근재의 시에 차운하다(次鏡浦臺安謹齋詩韻)』, 『국역 가정집』 제19권, 한국고전번역원, 2007. 이상현의 번역 일부 수정함.

十二朱欄碧玉簾
 秋晴琪樹暗香飄
 ② 千年海闊秦童遠
 ③ 一曲湖明越女嬌
 芳草佳期當落日
 美人歸夢隔層霄
 漁翁猶唱瀛洲曲
 船過江門舊板橋

열두 개 붉은 난간에 벽옥소 소리 들리고
 가을 맑은데 아름다운 나무에선 은은한 향기 날린다.
 천 년 바다 넓은데 진동 자취 멀고
 한 구비 호수 맑은데 월나라 여인 아리따구나.
 꽃다운 풀 아름다운 기약 떨어지는 해를 마주하니
 돌아가고 싶은 미인의 꿈은 높은 하늘에 막혔네.
 어부는 오히려 영주곡을 부르면서
 배는 강문의 옛 널다리를 지난다.²⁵⁾

앞의 작품은 안축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이곡의 시이고, 뒤의 작품은 조선 중기 조하망(曹夏望, 1682~1747)이 지은 시이다. 경포의 경관을 소재로 지은 작품들은 고려 후기 이래로 고른 시대적 분포를 보일 뿐 아니라 남아있는 양도 적지 않다. 그런데 이들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이미지는 신선들이 노닐 만한 곳이라는 점에 덧대어 파생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위의 두 작품은 신선의 이미지가 어떤 방식으로 확장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우선 ①에서는 당나라 하지장(賀知章)의 고사를 인용하였다. 하지장은 현종 치하에서 예부시랑을 지내고 노년에 절강성 사명산(四明山)으로 들어가 은거를 하면서 스스로 사명광객이라고 칭하였다. 그가 은퇴할 때 현종은 하지장의 고향에 있는 호수를 하사하였는데, 그 호수가 바로 경호(鏡湖)이다. 절강성 소흥(紹興)에 위치한 경호는 감호(鑑湖), 장호(長湖), 경호(慶湖) 등의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곡 자신이 작품 안에서 '사명광객'이라는 별호를 사용하는 순간 경포호는 하지장이 은거했던 경호를 상징하는 일종의 상관물이 된다. 독자들은 사명광객을 통해서 경호를 연상하고, 벼슬을 그만두고 노년에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삶을 즐기는 사명광객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즉 ①의 실제 내용은 이곡 자신이 훗날 벼슬을 그만 두고 경포호와 같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한적한 치사객(致仕客)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싶다는 소망을 담은 것이다.

www.kci.go.kr

25) 曹夏望, 『鏡浦臺』, 『西州集』 卷3: 64-271.

경포호라는 명칭이 언제부터 통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원래 다른 이름으로 불렸는데 문헌에 기록되면서 중국 명칭으로 바뀌었는지 알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국 문화사에서 널리 알려진 고사를 통해서 경포가 중세 보편문화의 지형도 속에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런 연유로 인해 한문학을 토대로 문필활동을 하는 근대 이전의 지식인들에게 경포호는 경호, 감호 등의 별칭으로 동시에 불리는 계기가 되었다.

①이 하지장의 고사와 관련하여 경포호의 이미지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였다면, ②와 ③의 경우는 사선과 홍장 고사가 확장되는 모습을 흥미롭게 보여준다. 조하망의 작품은 전반적으로 도선적(道仙的)인 분위기를 띄고 있어서 경포호 주변의 경관이 속세와 구별되는 선계(仙界)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 그런데 ②에 등장하는 ‘진동(秦童)’은 경포 주변의 신선 이미지와는 관련이 없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오라며 동해의 삼신산을 향해 동남동녀(童男童女) 3천 명을 보냈다는 고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포호 주변의 경관 중에서 이와 관련된 유물이나 전설이 있을 리 없다. 그렇지만 경포대 앞에 펼쳐진 넓은 동해를 보면서 조하망은 문득 진시황이 열망했던 삼신산을 품고 있는 동해를 떠올린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경포 주변에서 노닐었다고 하는 신라의 네 신선은 진시황의 불로초와 동해의 삼신산을 연상하게 하는 매개로 사용되었다.

③은 홍장 고사가 확장된 예이다. 강릉 지역의 미인 홍장에서 시작된 상상력은 서시(西施)를 지칭하는 ‘월녀’로 나아간다. 월녀는 오(吳) 지방의 여인이고, 그곳은 하지장이 하사 받았던 경포가 있는 지역이다. 그러니 아름다운 여인 홍장은 서시의 이미지와 덧씩워짐으로써 새로운 문화적 의미를 부여 받는다.

이처럼 경포대와 경포호 주변의 경관은 중세가 구성하는 보편문화의 자장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지식인들 사이에서 하나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경포대 주변의 경관은 하지장이 하사 받았던 경호와 그 주변 경관으로, 신라의 신선들과 홍장 이야기는 동해 삼신산과 서시의 이미지로 나아감으로써 강릉의 한 구역이 중세적 문화의 색깔을 입고 독자들에게 읽혔다. 그것은 하나의 구체적 경관이

중세 보편적 문화로 탈바꿈을 한 것이다. 한정된 지역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경관은 이렇게 명승 이미지를 조금씩 획득하게 되면서 유명세를 타지만, 동시에 지명과 경관의 구체성이 사라지면서 유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3. 풍경의 유형화와 관습적 표현의 득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포대 및 주변 경관에 대한 묘사는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거울 같은 호수를 부대경관으로 삼고 있는 경포대라고 하는 경관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다양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기괴한 사물이나 경관이 없는 곳이었으므로 새롭고 기이한 묘사를 만들어내기에는 한계를 가지는 곳이었다. 경포대에서 바라보는 경치를 발견한 초기 기록인 안축의 글에서도 이미 인정한 것처럼 다채로운 글 솜씨를 뽐낼 수 있는 소재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그저 바다와 호수가 주는 광활함과 안정감, 계절에 따른 변화무쌍한 기상 등이 글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치였을 것이다. 거기에 강릉 지역에서 전하는 사선(四仙) 이야기를 활용하여 신비로움과 청정함의 이미지를 덧붙여서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풍경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 홍장(紅粧) 고사가 끼어들면서 지역적 성격을 이어간다.

어떤 경관이든 일정한 시간 동안 문학적 유산이 축적되면 어느 순간 구체적인 풍경에서 보편적 풍경 묘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경관이 사람들에게 주는 상상력의 범주가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는 의미기도 하다. 경관의 묘사 방식에 새로움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관찰이나 감동을 기존의 표현에 기대게 된다.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편리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경포대 및 주변 경관을 소재로 지어진 시문을 살펴보면 용사(用事)된 단어라는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 계열로 구분된다. 하나는 고려 이후 꾸준히 전승되어 오던 지역적 특색을 드러내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아시아

보편 문학의 전승을 따르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전자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네 명의 신선이나 홍장 고사와 관련된 단어를 활용하여 경관을 묘사하는 것이다. 거기에 강릉 지역에 전승되는 구비문학 중에서 창해역사(滄海力士) 관련 고사도 간간이 이용된다는 점에서, 이 계열의 용사는 주로 지역의 구비문학적 특성을 적극 수용하여 창작 활동에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중국의 고사들 예컨대 하지장(賀知章) 관련 고사나 진시황 관련 고사를 포함하여 중국의 이름난 누각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경관의 보편적 묘사리는 측면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으로는 삼척부사로 있던 심영경(沈英慶, 1829~?)이 1876년에 지은 경포대 시를 들 수 있다.

十二欄干碧玉臺
大瀛春色鏡中開
綠波淡淡無深淺
白鳥雙雙自去來
萬里歸仙雲外笛
四時遊子月中盃
東飛黃鶴知吾意
湖上徘徊故不催

열두 난간 벽옥의 누대
큰 바다의 봄빛이 거울 속에 열렸다.
푸른 물결 담담하게 깊고 얕음 없고
흰 물새 쌍쌍이 제 스스로 오고 간다.
만 리 밖 돌아가는 신선은 구름 밖에서 젖대 불고
사시사철 노니는 이들은 달빛 속에서 술잔 든다.
동쪽으로 날아가는 황학은 내 마음 아는지
호수 위를 배회하며 짐짓 재촉하지 않는다.

조선 말기에 지어진 작품 중에 이렇게 대중적인 인기를 끈 것은 흔치 않다. 이 작품은 지금도 한국 음악에서 시창(詩唱)으로 인기리에 가창되고 있다. 작품 안에는 그동안 활용되어 오던 다양한 용사의 소재들이 녹아 들어있다. 우선 경포대 및 주변 경관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대영, 녹파, 백조가 있다. 문제는 이들 단어들이 경포의 경관을 특징적으로 드러낸다고 하기에 어렵다는 점이다. 바다가 있고 호수가 있으면 이들 단어는 평범한 것이어서 딱히 하나의 경관을 특징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작품 안에서 경포 및 주변 경관을 묘사한 부분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오히려 다른 측면들, 특히 도교적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하려 한 부분이 대중들의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제1행에서 이미 경포대라는 하나의 누대를 신선들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기에 신선과 적대, 황학 등은 신선이 등장하는 도교적 분위기를 조성할 때 늘 사용되는 것들이다. 이들 역시 평범한 단어들이지만 심영경은 이들을 통해서 기존에 전승되어 오던 사선(四仙)의 이미지와 황학루(黃鶴樓)의 이미지를 통합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적 특색과 동아시아 보편 문화의 측면을 모두 이 작품에 담아서 경포대를 상상의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물론 한시 창작의 수법도 정교해서, 평측(平仄)이나 대구(對句)도 나무랄 데 없다. 게다가 사시사철 물려드는 유람객[遊子]들이 달빛 속에서 술잔을 드는 순간 그들도 경포대 및 주변 경관이 만들어내는 도교적 상상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 신선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러한 문학적 효과를 심영경은 기존의 다양한 용사를 모아서 집대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용사를 통한 관습적 표현의 활용은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작자가 만들고 싶은 공간을 독자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작품을 읽을 때 발생하는 문학적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단점을 가진다. 독서 과정에서 '낯설게 하기'를 통한 긴장감을 만들어내서 독자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관습적 표현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 동시에 경포대와 주변 경관은 그 자신의 독자성 혹은 특이점을 잃어버리고 관습적 표현 속으로 혼효되면서 유형화된다. 호수 주변에 날아다니는 다양한 물새들은 '황학'에 비의되면서 자신의 독자성을 잃게 되고,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호수의 모습은 '鏡' 속으로 들어가 유형화된다. 다른 누각과 구별되는 경포대의 외양도 '십이난간으로 구성된 벽옥의 누대'라는 표현 속으로 들어가면서 자신만의 특이점을 잃는다.

어찌 보면 이러한 논의도 문학을 포함한 예술이 가지는 일반적 특징일 수도 있다. 낯선 부분을 통해서 작가 자신의 의도를 감상자에게 강하게 드러내는 한편 그 낯섦이 지나쳐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기존의 관습을 활용하는 두 측면은 어느 시대에나 필요하다. 일종의 기대지평(Horizon of

expectations)이 만들어내는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 조정이 시대와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겠지만, 그것을 작품 속에 구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풍경 묘사에서 관습적 표현은 감상자의 기대지평을 충족함으로써 획득하는 안정적인 문화 향수의 측면을 가지는 한편 특별한 감흥을 주지 못하고 식상하고 무감각한 차원으로 떨어뜨리는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 적절한 조정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4. 결론 : 보편적 사유의 반영과 지역적 특성의 조화

풍경을 발견하는 문맥 안에는 필연적으로 주체의 시선이 내재해있다. 풍경은 자연물 자체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물의 배치를 새롭게 해석해내고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 해석과 노력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감상자들에게 다양한 의미와 흥취, 감정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명승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풍경의 구성에 주체의 시선은 필수적으로 개재한다.

경포대 및 주변 경관에 대한 초기 인식은 안축을 비롯한 고려 후기 관료문인들의 기록에서 처음으로 드러난다. 그들은 주변에 기이한 자연 경관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광활한 바다와 잔잔한 호수가 주는 아름다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경치를 주목했다.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안축은 경포대 주변의 경관을 담담하게 한가롭고 넓은 것[淡然閒曠]을 그 특징으로 언급하면서 기괴하여 특이한 사물이 없다[無奇怪異物]고 하였다. 이전까지만 해도 기괴한 모양으로 사람의 눈길을 끌어야 경관으로서 감상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안축은 그런 것이 없이 담박하고 고요한 풍광만으로도 충분히 감상할 만한 곳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것은 성리학적 사유의 세례를 받은 고려 후기 사대부 계층의 신진 지식인들의 시선이 투입되면서 생겨난 성향으로

보인다. 그것은 성리학이 지향하는 바 외물(外物)에 의해 방해 받지 않는 내적 수양과 관련이 있다. 안축의 시선을 통해 제시되었던 경포대 및 주변 경관의 풍경 구성은 조선 시대로 접어들면서 유학자들의 공감을 널리 얻게 되고, 이를 통해서 경포대는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명승으로 자리를 굳히게 된다. 기이한 사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면을 돌아보게 하는 풍경으로 구성된 것이다.²⁶⁾ 물론 이 문제는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이전의 유림자 혹은 풍경 감상자들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던 특징인 것은 분명하다.

이후 경포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드넓은 바다와 고요한 호수의 이미지가 중심이 되어 확대 재생산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풍경은 다른 지역의 비슷한 지역과 차별성을 가지기 어렵다. 바다와 호수가 있는 풍경은 발견하기 어려운 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포대의 이와 같은 풍경에 차별성을 부여하는 것은 지역성을 반영하는 요소다. 안축은 사선(四仙)의 행적을 통해 강원도 영동 지역에 전승되고 있던 신라 신선의 이미지를 풍경 구성의 문화적 요소로 부각시킨다. 네 명의 신선은 경주에서 금강산에 이르는 동해안 연안의 길을 따라 흔적을 남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강릉 지역이다. 한송사(寒松寺) 혹은 한송정(寒松亭)의 유적은 오랜 전승 유래를 가지고 있는데, 안축은 이 전승에 경포대를 끼워넣은 것이다. 이를 통해서 경포대는 지역성을 획득한다. 동시에 경포대는 도선적(道仙的) 이미지가 함께 착색됨으로써 무릉도원과 같은 이상향의 이미지를 획득하게 된다. 이후의 한시 문에서 유형적으로 등장하는 ‘봉호(蓬壺)’ ‘호중천지(壺中天地)’ 이미지는 경포대 주변을 도선적 이상향으로 인식되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이미지를 적극 활용한 것이 바로 조운홀(趙云仵)의 일화로 널리 알려진 홍장(紅粧) 고사다. 서거정의 『동인시화』에 일찍이 소개된 것을 보면 고려 말 조선 초에는 이 일화가 지식인들 사이에 경포대에서의 풍류로운 이야기

26) 예컨대 조선 전기 명현으로 꼽혔던 삼가(三可) 박수량(朴遂良, 1475~1546)의 「登鏡浦臺」는 그러한 경향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鏡面磨平水府深, 只鑑形影未鑑心. 若教肝膽俱明照, 臺上應知客罕臨.” (『삼가집三可集』)

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일화는 도선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풍류남이들의 호기로운 놀이로 구성된다. 이 역시 사선 이야기와 함께 경포대의 지역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고요하고 광활한 주변 경관에 사선의 행적과 흥장 고사를 활용한 지역성을 부여함으로써 경포대는 명승으로 널리 인정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정은 조선 시대에 창작된 시문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시문은 소재와 활용 단어를 유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경포대를 유람하지 않은 사람들도 경포대의 이미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단계로 접어들면서 경포대 풍경은 하나의 유형적 이미지로 인식된다. 주체의 인식 역시 언어에 고착됨으로써 풍경은 유형화의 길을 더욱 강화한다. 풍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등장하면서 유형화에 균열을 내고 풍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글쓰기가 등장하면서 명승은 재구성 단계로 들어간다. 새로운 문화적 환경의 조성, 새로운 사유의 확장, 새로운 글쓰기 방식의 발명, 뛰어난 문인의 등장 등 많은 요소들이 명승의 재구성에 기여하게 된다. 명승의 유형화에 균열을 내는 요소와 방식들에 대한 논의는 후고를 기약하고자 한다.

■주제어: 명승, 풍경의 구성, 풍경의 유형화, 경포대, 지역원형, 관습적 표현

<참고문헌>

1. 자료

- 박수량, 『三可集』, 필자소장본
서거정 외 공편, 『국역 동문선』, 한국고전번역원
서거정, 『東人詩話(下)』, 이우출판사 영인본, 1980, 96~97면
성현, 『虛白堂文集』, 한국고전번역원 영인본
안축, 『국역 근재집』, 한국고전번역원, 467면
이곡, 『稼亭集』, 한국고전번역원 영인본
이규대 임호민 공편, 『강릉의 누정자료집』, 강릉문화원, 1997
이인로, 『破閑集』, 영인본: 아세아문화사, 1972
이행 등 공편,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한국고전번역원
장유, 『谿谷集』, 한국고전번역원 영인본
조하망, 『西州集』, 한국고전번역원 영인본
최해, 『拙藁千百』, 한국고전번역원 영인본

2. 논저

- 김풍기, 「고산구곡가에 나타난 이상향의 의미」, 『울곡학연구』 제29집, 울곡연구원, 2014, 225~252면
김풍기, 「근재 안축의 시문에 나타난 강원도론」, 『강원문화연구』 제17집,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1998년 9월, 133~155면
김풍기,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의 명승(名勝)의 구성과 탄생: 설악산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제33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4년 3월, 333~363면
김풍기, 「서거정의 시에 나타난 풍경 구성 방식과 원림 문화」, 『고전과 해석』 제18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15년 4월, 193~218면
김풍기, 「안평대군 그룹의 문화적 토대와 창작 경향 - 조선 초기 관인문학의 이상향 찾기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제36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4년 12월, 77~101면

안장리, 『한국의 팔경문학』, 집문당, 2002

이한길, 「김극기의 <경포대> 한시 연구」, 『동방학』 제14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8년 4월, 61~95면

프랑수아 줄리앙, 김설아 옮김, 『풍경에 대하여』, 아모르문디, 2016, 42~45면

황기원, 『경관의 해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30~39면

[Abstract]

The Formation and Typification of Scenic Spot: Focused on the Case of Gyeongpodae

Kim, Pung-gi

A subject's gaze is inevitably inherent in a process of discovering and appreciating any scenic spot. Landscape is not just recognized by natural objects themselves, but by the efforts of the subject who interprets the arrangement of natural objects from a new and different perspective and endows meaning to them. When the subject's interpretation and efforts get some social consensus and create various meanings, appeal, and emotions to the audience, people, only then, acknowledge a spot as a scenic place. Therefore, the subject's point of view is essential to the formation of the landscape.

The initial perception of Gyungpodae and its surrounding landscape can be found in the records of An Chuk, a scholar and poet of late Goryeo Dynasty. Before An Chuk, people would generally accept a place as a beautiful landscape only when it draws people's eyes in a unique and unusual shape. But An thought that any place could be meaningful enough to appreciate even though it was just simple and still. In a transition to Joseon Dynasty, the landscape formation around Gyeongpodae, which An suggests through his own interpretation, arouses the Confucian scholars' appreciation and, that way, Gyeongpodae is definitely recognized as the scenic place among the intellectuals of Joseon Dynasty.

The landscape that people can look out over from Gyeongpodae is repeatedly and considerably reproduced, mainly focused on the image of the open sea and the serene lake. However, these landscapes are difficult to differentiate from

similar ones in other regions. It is the elements reflect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that give the differentiation to such a landscape of Gyeongpodae. By tracing Sa-seon, that is, four hermits, An Chuk emphasizes, as a cultural element of landscape formation, the specific images of Taoist hermits in the Silla Dynasty, which are later passed down in the Yeongdong area of Gangwon province. In this way, Gyeongpodae gains locality. Also, it acquires Arcadian imagery like Xanadu by being tinted with some Taoist images. Another element that shows regional characteristics is an old episode of Hongjang. This anecdote, which owes to Taoist images of Gyeongpodae, shows various amusements of taste and gallant spirit that the intellectuals of those days enjoy.

Gyeongpodae becomes highly celebrated for a certain scenic spot by pre-modern intellectuals who dream of a Taoist ideal on the basis of Confucianism. Yet, it results in standardized typification of this place. In poetry depicting Gyeongpodae, materials and ways of expression are repeated similarly and typically. This tendency makes it possible for those who have not visited Gyeongpodae to share its archetypal images. As the perception of the subject becomes fixed to the language, the typification of the landscape gets increasingly intensified.

【Key Words】 : Scenic spot, landscape formation, typification of landscape, Gyeongpodae, local archetype, typical expression

김풍기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효자동)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전자우편: pung10@kangwon.ac.kr

이 논문은 2018년 2월 19일에 투고되었으며, 2018년 3월 9일에 심사 완료되어 3월 13일에 게재 확정되었음.